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30.(화) 13:30	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	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형건우 (044-203-5628)

「美 인플레 감축법(IRA)」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개최

-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 주재로 '22.8.30(화) 오후 13:30 **긴급 통상추진위원회**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**「美 인플레이션 감축법**(Inflation Reduction Act)**」에 대한 대응방안**을 논의한다.

<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>

· (참석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통상차관보, 외교부 2차관,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
· (일시/장소) '22.8.30(화) 13:30 /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실(8층)
· (안건)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대응방안

□ 우리 정부는 그간 **「美 인플레이션 감축법」**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**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**하며 **다각도로 대응***해왔다.

* 美 무역대표부·국무부 대상 고위급·실무진 면담, 美 의회·행정부 대상 서한발송 등

○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만큼, 앞으로 **통상교섭본부장**을 **반장**으로 **범부처 합동대책반**을 **가동하**여 **수시로 대응방안을 논의**하고, **업계와도 지속 소통**하며 **총력 대응할 방침**이다.

○ 또한, 동 법안 관련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**美 의회·행정부와 전략적**으로 **협의**해 나가는 한편, **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**할 계획이다.

※ <붙임>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형건우 (044-203-5628)
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이듀정 (044-203-5651)

붙임 **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**

최근 미국 정부는 **'인플레이션 감축법'**을 시행했습니다.
동 법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
미국과 다른 나라 기업을 **차별적으로 규정**하고 있어,
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동 법 시행일(8.16) 이후 우리 **현대차기아**를 포함하여, **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**되었고,
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이럴 때일수록 **우리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단합하여 함께 대응**해 나가야 하며, **본인도 9월초 미국을 방문**하는 만큼,
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**통상추진위원회**를
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저는 오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,
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첫째,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
전략적으로 對美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.

우선, 양국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
별도 **양자 협의체(bilateral consultative mechanism) 구성이 필요하고, 이를 미측과 논의**하겠습니다.

산업부-상무부간 **공급망·산업대화(SCCD)**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,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입니다.

미국내 여러 상황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
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한미 양자간 협의를 통한
조속한 해결을 **최우선적으로 모색**중이나,
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도 병행하겠습니다.

아울러, 양국은 **첨단기술·공급망 분야 상호 투자가 확대**되고 있으며, **미래기술(AI·퀀텀·바이오 등), 원전, 재생에너지** 등 앞으로도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, **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**시켜 나가겠습니다.

둘째, 국제공조도 추진하겠습니다.

이번 **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조치**는
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**독일,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**되고 있습니다.
필요시 **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**들과 **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**을 모색하겠습니다.

셋째, 범부처가 원팀, 원보이스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.

그간 관계부처는 **긴밀하게 공조**해 왔고, 금번 정부합동대표단 미국 출장에도 **산업부, 기재부, 외교부**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

상황이 엄중한 만큼, **범부처 협업체계를 더 강화**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**본인이 반장이 되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'정부합동대책반'**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 **관련 업계와의 소통**도 활발히 하겠습니다.

저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여 **USTR 캐서린 타이 대표**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.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결과 등 **서로 정보를 공유**하고 **대책을 숙의**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

아무쪼록 이번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전기차 수출에 대한 **차별적인 대우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**
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**경주할 것입니다.**

아울러,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**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요인**도 있습니다.

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**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**해질 것으로 보이며, **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게도 기회**가 될 수 있습니다.

우리에게 **도전과 기회가** 함께 있는 만큼,
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.